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창의융합 사고력 증진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대여 지원사업 하이브러리

....



SK 하이닉스

# 하이브러리 독후감 경진대회

## 수상작품집



....





SK 하이닉스  
**하이브러리** 사업소개

「하이브러리」 사업은 도서 접근성이 낮은 전국의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공유도서관 플랫폼'을 통해 매일 읽고 싶은 도서를 무료로 대여하고 배송받아, 편리하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도서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트-하트재단 주관, SK하이닉스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2023년 3월부터 도서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의 지역사회 내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더불어 '하이브러리 독후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본 사업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들의 독후감 작품을 모집하였고, 모집결과 총 153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전달력, 작품성, 참신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한 작품 총 1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하이브러리 독후감 경진대회 수상작품집'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창의적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독서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의 꿈나무들이 책을 어떠한 제한없이 마음껏 읽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간접 경험을 확장할 뿐 아니라, 잠재된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르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SK하이닉스와 하트-하트재단은 지역 별 교육 및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이 미래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b>대 상</b>	지은호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4
<b>최우수상</b>	전예은   다비다모자원	6
	조민성   삼전동송파키움센터	8
<b>우수상</b>	김예진   다비다모자원	10
	김현경   항상행복한홈스쿨	12
	박예빈   항상행복한홈스쿨	14
	이은채   반짝이는지역아동센터	17
<b>장려상</b>	김주희   항상행복한홈스쿨	18
	김채민   가락2동송파키움센터	20
	박선재   항상행복한홈스쿨	22
	이서희   서울숲아이꿈누리터	24
	이유나   항상행복한홈스쿨	26
	정우진   삼전동송파키움센터	29



# 강아지똥

지은호 | 은평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많은 책들을 둘러보다 내 눈에 띈 책은 강아지똥이었다. 친구들과 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는 일이 많고 지저분하지만 웃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이다. 집을 가다가 모르고 강아지똥을 밟아서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난다. 더러운 똥에 대한 책이어서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처음 이야기는 강아지똥의 탄생 이야기였다. 돌이네 강아지인 흰둥이의 몸에서 강아지똥이 태어났다. 지나가던 참새가 먹을 건 줄 알고 건드렸는데 더러운 똥이라고 이야기하며 날아가 버렸다. 강아지똥은 스스로 똥이라는 것에 대해 더럽고 슬프고 화가 났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흙덩이가 웃으면서 지켜보니 똥은 화가 나서 물었다. 흙덩이는 똥은 똥이지 똥 중에서 가장 더러운 개똥이라는 말에 강아지똥은 울음을 터트렸다.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존재로 태어난 강아지 똥이 불쌍했다. 흙덩이도 자기 자신이 더 필요 없는 존재라며 가뭄에 아기고추를 살리지 못한 일에 대해 슬퍼하였다. 그래서 벌을 받아 길에 버려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달구지 아저씨를 만나 다시 밭으로 돌아갔다. 흙덩이가 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똥도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똥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쓸쓸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초등학생이고 힘도 없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강아지똥이 나의 모습을 보는 거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후 지나가던 병아리들과 어미닭이 똥을 보더니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그냥 가버렸다. 그러다 봄비가 내리더니 강아지똥 앞에 민들레 싹이 돌아났다. 강아지똥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하며 물어보고 민들레는 하늘의 별만큼 예쁘고 방실방실 빛나는 존재라는 꽃의 말에 부러워하였다, 민들레는 자신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강아지똥이 거름이 돼 줘야 하고 몸속으로 들어와 줘야 별처럼 고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였다. 강아지똥은 꽃에게 거름이 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 너무 기뻐하며 꽃을 안아주었다. 비가 계속 내리며 강아지똥은 부서지고 땅속으로 들어가 민들레의 영양소가 되었다. 비가 그친 후 민들레는 어느덧 예쁜 꽃을 피웠다. 더럽고 쓸모없는 줄 알았던 똥도 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며 나 또한 어리고 힘도 약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강아지똥 책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야기는 짧았지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아지똥처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민들레처럼 꽃을 피우며 살아야겠다.



최우수상

# 누가 나의 가족일까? 우리는 가족

전예은 | 다비다모자원

오늘은 "누가 나의 가족일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책을 읽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다양한 가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랐다. 어떤 가족은 구성원 수가 많고, 어떤 가족은 적으며, 공간만 함께 쓰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도 있다. 또한, 혈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족도 있고, 순전히 사랑만으로 연결된 가족도 있다.

기억에 남는 가족 종류가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엄마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엄마는 어른 두 사람 몫을 해낸다. 수백만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 준다. 두 번째는 한 지붕 안에 여러 가족이다. 이 가족은 한 지붕아래 여러 세대가 함께 산다. 대가족 안에는 저마다의 세계가 있고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조부모 세대의 지혜와 부모 세대의 경험, 자녀 세대의 열정, 손주들의 사랑스러움까지 이 가족에게 있다. 세 번째의 가족은 지구의 가족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모든 것들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가족 안에서 살아가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속한 인간이라는 종을 넘어,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우리의 가족이다.

첫 번째 가족에서 엄마와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가족도 엄마와 나로 이루어져 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많이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가족은 한 지붕 안에 여러 가족이 사는 대가족이었는데 나도 베트남에 가면 대가족이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삼촌, 이모, 언니와 전부 다 함께 베트남 다낭에서 과일 망고 먹고 용과도 먹었던 생각이 났다. 자전거를 타고 다낭 한 바퀴 돌았을 때도 재밌었다. 다음에 베트남을 간다면 더 알차게 놀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지구에 사는 모두가 가족이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돌과 풀, 나무, 새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맞이하는 따뜻한 햇살과 푸른 하늘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지구가 노는 것들의 어머니여서 좋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가족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고 베트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과 함께 있어 대가족이 된다,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지구의 가족이 존재한다. 앞으로 나는 가족을 만들게 된다면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을 만들 것이다. 모든 다양한 가족들이 지금의 나처럼 행복하였으면 좋겠다.



꼬마돼지는 꿈이 생겼다. 바로 할머니와 자전거로 바닷가를 달리는 것이다. 한밤중 꼬마돼지는 좋은 생각이 났다. 떼어낸 보조바퀴를 할아버지의 낡은 자전거에 달아 놓았다. 아침이 되어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침식사로 빵과 오렌지 주스를 할머니를 위해 준비했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할머니에게 자전거 타기를 가르쳐 주었다.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꼬마돼지와 할머니가 '씽씽'자전거를 타며 바닷가를 달리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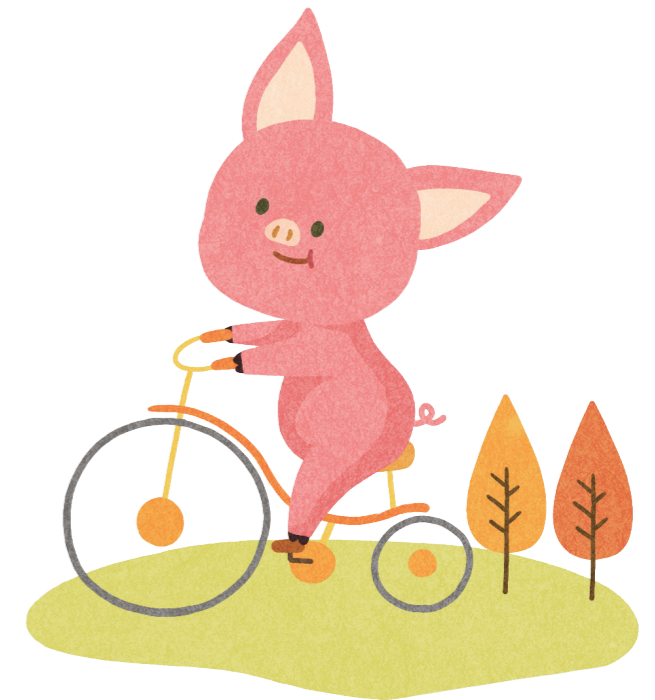
최우수상

# 씽씽 달리는 꼬마돼지

조민성 | 삼전동송파키움센터

꼬마돼지는 너무나 규칙적인 할머니 때문에 언제나 시무룩하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기로 해서 힘없이 할머니 댁으로 갔다. 아침으로 빵과 오렌지 주스를 먹고 보조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탔다. 씽씽 잘 달렸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연장을 들어 보조바퀴를 떼버렸다. 꼬마돼지는 몹시 당황했지만 할머니 표정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다. 과연 꼬마돼지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우당탕탕 넘어지고 땅바닥에 나뒹굴어도 꼬마돼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꼬마돼지는 잘 알고 있었다.

드디어 노을이 지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두발자전거 타기를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한 꼬마돼지는 너무 너무 기뻐했다. 할머니도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꼬마돼지의 마음이 내 마음까지 전달이 되었다. 내가 2학년 때 레고 선물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꼬마돼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경험이 생각났다.



우수상

# 유재와 마카, 대추나무를 지켜라

김예진 | 다비다모자원

오늘 “유재와 마카, 대추나무를 지켜라!”라는 책을 읽었다.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다가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또, 시골에서 대추나무를 본 적이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었다.

책에서 ‘유재’라는 남자애가 나온다. 이 남자애는 마카트로닉이라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마카’를 좋아한다. 자신과 비슷하게 마카의 앞머리는 M자 모양으로 나있어서 더욱 좋아한다.

만화 속에서 마카가 악당들에게 나무에 묶여서 위기에 처한 순간이 있었다. 그때, 마카가 묶인 나무는 까망게 타있었다. 그날 밤 유재네 앞마당에 있던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고 까망게 탔다. 대추나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애지중지하시면서 열심히 보살핀 나무였다.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금만큼이나 가격이 비싸진다고 하였다.

유재는 대추나무와 마카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여서 대추나무가 팔리지 않기를 바랐다. 할머니도 80

년이 넘게 키우고 할아버지와 추억이 담긴 대추나무를 팔고 싶지 않아 하였다. 하지만 유재의 엄마, 아빠, 고모, 고모부는 대추나무를 팔아서 돈을 벌고 싶어 하였다. 유재는 대추나무를 지키기 위해 가짜 나뭇잎을 사서 대추나무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 사실이 들통나서 대추나무가 팔려가기 직전이었는데 진짜로 대추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렇게 대추나무를 지킨 밤, 유재는 마카트로닉을 타고 온 마카가 자신의 방패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들었다. 유재와 할머니의 바람대로 대추나무가 팔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어렸을 적 시골 대추나무 밑에서 놀다가 벌어지는 대추를 맞은 기억이 있어서 대추나무를 좋아하진 않는다. 근데 나와는 다르게 유재는 대추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대추나무를 안 팔고 싶어 했는데 할머니 몰래 팔려고 한 가족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가족들이 악당처럼 보인다고 유재가 말했는데 정말 공감하였다.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추억이 담긴 내 소중한 물건을 허락도 없이 팔려고 한다면 화가 날 것 같다. 정말 비싼 물건이라도 누군가의 추억이 담겨있다면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추나무가 팔리지 않았으면 하는 유재의 소망을 누가 듣기라도 한 건지 정말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죽지 않고 새싹이 났었다. 나무가 벼락을 맞고 살아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였다.

책 마지막에 유재에게 마카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부분을 보고 부러웠다. 나도 내 속마음을 다 말하는 캐릭터 친구가 있다. 기척처럼 내 앞에 와줘서 딱 하루만 같이 놀고 싶다. 하지만 캐릭터가 현실에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속에서 함께해야겠다. 책을 재밌게 읽어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우수상

## 토요일에는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 하지 마세요

김현경 | 항상행복한홈스쿨

책을 읽기 전 표지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괴롭히는 내용인 줄 알고 흥미로워 읽게 되었다. 그런데 읽은 후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은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하며 읽게 되었다.

또 이 책에는 내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여럿 있었다. 주인공이 토요일 일은 변화가 가장 많은 요일이라며 조심하라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얼마 전 토요일에 친구와 AK 쇼핑몰에서 만나 놀기로 했던 친구가 할머니 집에 가게 되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나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변화가 가장 많은 요일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줄넘기 기록 세우는 작은 대회를 학원에서 했는데 2등과 기록이 2초 차이 밖에 안 나서 조마조마했지만 책에서 나온 괴롭거나 힘들 때 '호흡법'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라는 방법을 사용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많이 슬프고 힘들겠지만 절대로 너의 책임이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고 느긋하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 그게 너한테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러지 못하겠으면 버텨. 부모님들은 못 버티고 무너졌지만 너는 무너지지 말고 최대한 버텨봐.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화이팅!"

그리고 이 책은 생각보다 내용이 짧았지만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은 다른 긴 책들 보다 많았다. 이 책은 부모님들이 이혼 결정을 하셨거나 이미 이혼하고 나서 괴로움을 버티지 못할 때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은 나도 생각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혼했거나 이혼 결정을 해버린 가정의 아이의 상황이면 더 생각이 많아지고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 조금은 위로가 되거나 해결책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 진짜 부자들

박예빈 | 항상행복한홈스쿨

책을 고르다가 제목을 봤는데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 진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읽었다.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알던 내용보다 조금 새로운 내용이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재산을 몰수했다.

그런데 1939년 유대인 어린이 669명을 니콜라스 윈턴이 구했다. 윈턴이 한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한 사람이 거기에서 문제를 보았다. 그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놓여 있었기에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만 했다.” 이 말이 가장 유익하고 기억에 남는 말이었다.

니콜라스 윈턴은 1909년 5월 19일 런던에서 태어나 유대인 부모를 두었고 윈턴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에서 공군 장교로 복무를 하기로 했다. 50년 뒤 니콜라스 윈턴을 알게 됐다. 250명의 아이들을 구하지 못해 “자랑할 것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은인이다.

“저는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할 정신도 관심도 없는데 그 669명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한 당신이 너무 멋져요. 저는 만약 그 사람이 가족, 친구, 애인이라고 해도 희생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한 당신이 마치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처럼 멋져요! 당신의 마음은 12월 처음 내리는 흰 눈처럼 새하얗고 봄에 살랑살랑 훑날리는 꽃처럼 아름다워요. 밤하늘에 별 엄청 예쁘잖아요. 그것처럼 당신도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은 당신이 그 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이란 걸 잊지 마요. 나도 당신을 꼭 기억할게요. 제 인생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가르침이 있는 멋진 이야기에요. 이 책을 이 멋진 이야기를 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전형필

우리나라 역사엔 '일제 강점기'라는 가슴 아프고, 어두운 역사가 있다. 나라를 일제 빼앗겼던 시대로 백성들은 물론 우리나라만의 역사와 문화까지 모두 다 짓밟히고 파괴되던 시대였다. 아름답게 빛나던 문화유산은 총성과 폭음에 부서지고, 아름답게 빛나던 보물들도 도굴꾼에 의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며 나라밖으로 팔려 나가고 있었다. 그때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친 그 사람이 바로 전형필이다.

전형필은 부잣집의 자제들처럼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전형필은 자신이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우리 민족 문화의 결정체인 미술품으로 쓰기로 다짐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 나라 밖으로 밀반출되어 가는 문화유산을 사들이는 일에 모든 재산을 바쳤고 해방 후에도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지키고 알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나라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당신이 너무 멋져요. 저는 기부할 때도 할까 말까 생각하면서 하는데 당신은 한치 고민도 없이 하는 모습이 내가 가장 본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는 이야기다. 250명을 구하지 못한 슬픔, 문화유산을 지킨 기쁨, 그 모든 이야기가 합치면 그 사이 어딘가 묘한 기분이 드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가르침은 무엇일까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며 보는 최고의 이야기이다.



이 책은 희망이 필요한 사람, 역사가 궁금한 친구,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내 생활 속 행동을 살피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이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니콜라스 윈턴처럼 나의 이득보다 남의 이득,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또 이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오늘 남에게 도움 되는 일을 했는가?' '나는 누구를 본받고 싶은가?' '나의 생활습관과 비슷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질문을 물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순간 5초 정적이 됐다. 나를 돌아보면서 깊은 한숨만 나왔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책을 많이 읽어서 책에 나오는 지식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짐했다.

요즘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책이 다시금 재밌어졌다. 어떤 내용일까 추측해 보고, 내가 생각한 내용과 얼마나 다르고 똑같은지, 지은이가 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재밌다. 책을 읽으면 난 아무것도 못 듣는다. 나와 시간을 보내며 생각을 하니 아무것도 못 듣는다.

여러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나는 꿈을 찾은 것 같다. 봉사하며 사는 삶, 이게 내 꿈이다. 여러 이야기 속 나온 여러 주인공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삶이다. 그래서 나도 주인공들처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예를 들어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거 말이다. 이렇게 차근차근하다 보면 언젠간 나도 따뜻하고 봉사정신이 훌륭한, 아름다운 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수상

# 닉 아저씨처럼 꿈을 가져

이은채 | 반짝이는지역아동센터



책표지를 보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읽게 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그냥 꿈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주인공이 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서 놀랐다. 장애를 가진 닉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하거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놀리기도 했다. 하지만 닉의 부모님은 더욱더 크고 깊은 사랑을 주고, 닉이 스스로도 잘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닉은 늘 감사하는 마음과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서 매일매일 멋지고 신나게 살아갔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 화가 났다. 장애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더 잘해주라고 말하고 싶었다.

이 책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닉 부이치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던 장면이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어도 잘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도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닉처럼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사실 그동안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해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닉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다. 언젠가는 나도 꿈을 이루어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제가 “토마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토마스야! 나도 왕따를 겪어본 적 있어. 왕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너는 정말 잘 헤쳐나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얼버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너가 한 방법을 보고 나는 오!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앞으로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길 바라! 카일야! 나는 네가 토마스랑 친해지고 싶은데 안돼서 장난치는 걸로 보여. 아닐 수도 있지만 토마스랑 친해지길 바라!



장려상

## 왕따 탈출 대작전

김주희 | 항상행복한홈스쿨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첫 번째로 ‘왕따 탈출 대작전’이란 제목이 끌리기도 하였고, 두 번째로 내전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 이 친구는 어떻게 헤쳐 나갔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가 카일에게 대한 왕따를 극복하려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토마스가 놀이터에 있었는데 카일이 토마스에게 “아무도 그따위 안경을 쓰지 않아!”라고 말하자 토마스가 아주 용기 있게 “나는 써”라고 말하였고 친구들이 토마스 편을 들어주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토마스가 카일에게 괴롭힘당하는 걸 보고 조금속이 마치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했는데 용기 있게 토마스가 카일에게 말해 속이 땡! 뚫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장면으로 얻은 교훈은 ‘뭐든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고, 용기를 내서 상대방에게 말하면 상대방도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입니다.



장려상

#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김채민 | 가락2동송파키움센터

‘재활용 내 옷은 플라스틱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가락2동키움센터를 다니는 김채민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재활용 내 옷은 플라스틱이야’입니다. 그리고 글을 쓴 분은 ‘해리엇 브런들’이라는 분이구요. 옮김을 해주신 분은 ‘이계순’이라는 분입니다. 그럼, 이제 독후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또 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행동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말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지구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구는 계속 아프고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최근 몇 십 년 전부터 급히 사람들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도, 아직도 담배꽂이를 바닥에 버리거나, 비닐봉지, 생수병 등등... 이 도로에 많이 굴러다니죠. 그리고 굴러다니는 것들은 바람을 타고 계속 이동하면서, 강까지 가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는 이유가, 아까 강까지 쓰레기들이 간다고 했죠? 그 쓰레기들이 강물을 타고 바다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면, 사람들도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결국 인류와 지구가 멸망해 버리는 거죠.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미래에 훨씬 더 심각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미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건강한 지구, 건강한 우리를 만듭시다!



장려상

# 친구의 말 한마디 -왕따 탈출大作전-을 읽고

박선재 | 항상행복한홈스쿨

요즘 왕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고 왕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를 보면 한 친구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많은 감정을 담은 것 같았고 안경에 비친 화난 얼굴의 소년이 있어 흥미로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토마스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싫어 가기 싫어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심술궂은 카일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카일이랑 같은 반이 아니라서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건 토마스의 착각이었습니다. 토마스를 괴롭히는 장소와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토마스의 친구들은 점점 카일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걔를 멀리해” 하지만 토마스가 멀리한다고 해도 항상 먼저 카일이 다가왔습니다. “카일에게 하지 말라고도 해 봤어. 하지만 걔 내 말을 듣지 않아.” 최소한 내 말은. 토마스는 카일이 자신을 괴롭힐 때 누군가 주의 깊게 봐 주길 원했습니다. 카일의 괴롭힘은 점점 더 잦아지고 토마스는 더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자신 탓을 하며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여전히 토마스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토마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카일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을 계속 작게 만들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카일 말이 맞다면? 내가 정말로 남들과 다르다면? 우리는 모두 남들과 다르잖아? 그래서 세상이 신기하고 재미 있는 것 아닐까?’ 토마스는 다시 한번 자신을 탓하지 말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로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토마스는 카일의 말에 당당하게 말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카일도 자신의 모습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토마스에게 한 번 더 생각한 뒤,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 수 없어. ‘나’로 산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난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책을 읽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토마스도 멋지지만 주위에 항상 있어준 토마스의 친구들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든 친구가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또는 주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을 다르게 봐. 넌 특별한 사람이잖아’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도 너처럼 정말 힘들 때가 있었지. 그럴 땐 나 역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힘든 시기를 버텼지. 너처럼 말이야. 그 후 나는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며 꿈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 너도 너처럼 당당하게 살며 너의 꿈을 이루어내! 화이팅!



하지만 다리미 자국을 다른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탕후루 모양으로도 해봐. 웬지 밥을 먹을 때 '와자작'소리가 날 것 같아. 아니면 나비 모양으로도 해봐. 식탁이 화려해질 거야. 그림을 그리고 색칠도 해봐. 재미도 있고 예쁘기도 해서 일석이조 일 거야. 나는 네가 실수를 해도 많이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 잘 지내!

서울에서 사는 서희가



## 실수한 아이에게

이서희 | 서울숲아이꿈누리터(성동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안녕?!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서희라고 해! 나는 네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실수를 한 걸 가지고 많이 걱정하지 마! 그때 많이 무서웠지? 나는 그때 "이거 동생이 했다고."라고 말했을 것 같아. 하지만 사람은 다 실수를 해. 나는 엄마의 반지를 끼고 있다가 잃어버린 적도 있는걸. 하지만 계속 실수를 하고 '아. 미안 실수야'이려고 넘어가면 안 돼.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핑계야! 실수를 하면 왜? 실수를 했는지 알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 혹시 실수를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되면 내 방법을 따라 해봐!

먼저 어른들한테 물어봐. 어른들은 우리보다 경험이 많아서 해결책을 알려 줄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다치지 않는지, 더 일이 커지지 않는지 다시 생각해 봐. 그러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 거야. 근데 너희 엄마는 정말 천사다. 너희 엄마가 아끼는 식탁보를 망쳤는데도 용서하다니... 우리 엄마는 번개처럼 '우르르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화를 냈을 것 같아.





# 안네의 일기

이유나 | 항상행복한홈스쿨

내가 읽은 책은 '안네의 일기'라는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역사 시간에 나치에 대한 수업을 듣다가 그 당시에 있던 일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안네의 일기를 보고 든 생각은 '암울한 내용의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표지가 매우 밝고, 화목해 보였기 때문이다. 꽃이 활짝 피었고 노란 나비가 날아다니며, 밝게 웃고 있는 표지는 내가 아는 '안네의 일기'와는 너무 달라 보였다.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를 버리기 위해서 귀여운 일러스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이해했다. 책 안쪽에도 귀여운 삽화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단어의 뜻이 적혀있어 어리고 지루한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전 명작을 잘 적어 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읽은 책은 원작의 축소판이다. 나는 언젠가 안네의 일기 무삭제 완전판을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축소판 안네의 일기를 읽고 축소판은 안네의 삶과 일기의 내용을 반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은 놀랐다.

안네의 일기는 열다섯이라는 어린 소녀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이다. 초반에는 '아빠에게 일기장을 선물 받았다'며 좋아하는 내용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총격과 식량난, 격해지는 전쟁 등 심각한 이야기가 많아 질수록 안네는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도 못하게 된다. 밖의 일만 해도 충분히 힘들 것 같은데 매일 집 안의 사람들이 안네의 탓만 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니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다.

안네는 은신처 생활 도중 성장기가 와 기존에 가져왔던 옷도 안 맞고, 생리도 시작했기 때문에 생활이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안네는 버텨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안네의 그런 점이 존경스럽다. 밖에 나가고 싶음에도 꼭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버텨내려 한 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은신처 밑에 사람들이 출근하면 물도 쓰지 못하며 절대 소리를 내서도 안된다. 가족 말고도 4명의 다른 유대인이 같이 살고 있는데 계속 안네에게 "내가 안네를 키웠다면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 거야."처럼 안네의 부모님을 대놓고 욕보이는 행동을 무례하게 말하거나 또는 "안네 프랑크는 정말 예의 없고, 제멋대로고, 자기중심적인 고약한 아이니까" 같이 불쾌할만한 말을 소리 지르며 말했으니 주변에 다른 어른이 없었다면 정말 무섭고 화가 날 것 같다.

안네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숙하고 똑똑하며 공부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아이다. 하지만 안네는 어렸고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주변 어른의 보호가 필요할 텐데 '아무리 무섭고 불안하더라도 안네가 제일 어린데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어리다고 알잡아 보며 모든 걸 안네 탓을 한다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앞서 말했듯 안네는 '어리지만 똑똑한 아이'이다. 그게 단순히 안네가 인내했다는 점이 아닌 안네가 한 말에서 그렇게 느꼈다. "뭐든 신중하게 검토하여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과장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요." 라고 안네는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았다. 이런 점이 나에게 와닿았다.

안네는 멋진 아이였다. 포기하지 않았고 용감했다. 비록 안네는 살아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끝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겼다. 나는 그 용감했던 아이에게 해주고픈 말이 있다. 너는 꿈을 이뤘다. '작가'라는 꿈을, 너의 이야기가 세상의 명작이 되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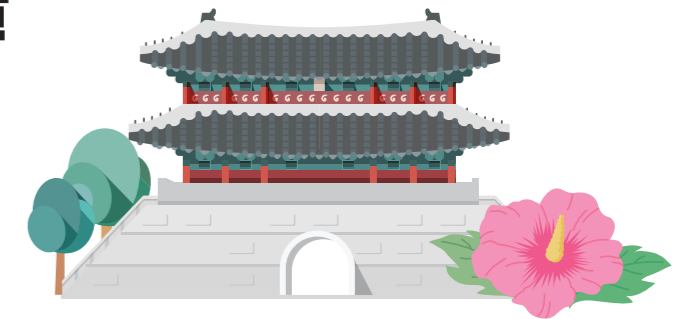
나는 안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끝내 나의 꿈을 멋지게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장려상

# 우리나라 보물들

정우진 | 삼전동송파키움센터



어처구니들은 심심하다며 진짜 어처구니없는 장난을 했다. 달에 물 채우기, 입김을 불어 달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위험한 불 마법을 함부로 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보물인 송례문을 태웠다. 이것을 본 하늘 임금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벌을 주었다. 나도 우리나라 보물인 송례문이 타버려서 화가 나고 속상했다. 하늘 임금님이 화가 난 이유가 이해가 됐다.

하늘 임금님은 별로 우리나라 보물을 찾아오라고 했다. 보물을 찾으러 어처구니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휘젓고 다녔다. "보물 찾았다" 하며 이구룡이 소리쳤다. 이구룡이 찾은 보물은 다보탑과 석가탑이다. 아직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보물이라 하니 꼭 봐야겠다.

그 뒤로 보물을 계속 찾았다. 찾은 보물은 바로 상감 청자, 무궁화, 떡, 태극기였다. 태극기가 우주를 담은 보물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태극기 안 동그라미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했다. 하늘 임금님은 보물을 찾은 어처구니들을 용서하시고, 송례문을 다시 지어주시고 어처구니들에게 잘 지키라고 하셨다.

책을 읽다가 송례문을 검색하니 진짜 지붕 위에 어처구니 5마리가 있어 놀라웠다. 우리나라 보물이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져 아름답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

부록 - 「하이브러리 독후감 경진대회」 시상식 사진



단체 사진



하트-하트재단 오지철 회장 축하



장려상



우수상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 축하



참여왕 기관



최우수상



대상



## 하이브러리 독후감 경진대회 수상작품집

---

- 발행일** 2023년 12월 19일(화)
- 홈페이지** [www.heart-heart.org](http://www.heart-heart.org)
- 대표전화** 02) 430-2000
- 문의** 하트-하트재단 국내사업본부 성원정
- E-mail** [swj@heart-heart.org](mailto:swj@heart-heart.org)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3길 34 하트-하트재단
-

SK 하이닉스

 하이브리리!  
독후감 경진대회

수상작품집 